

느헤미야 1 장

1. 보통은 ‘~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작하는데 느헤미야서는 좀 다르다. 느헤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만이 성경이 아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던 선지자의 삶의 현장에서 겪은 체험이나 경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 역사, 개인적인 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참고로 바사의 왕은 고레스(BC 539-529), 캄비세스(BC 529-523), 수메르디스(3개월), 다리오(BC 522-485), 아하수에로(BC 485-464), 아닥사스다(BC 464-424)... 등이다. 이 중에 에스더와 관련된 왕은 아하수에로이다. 이 왕들이 성전 재건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고레스 - 포로의 귀환과 성전재건을 명함, 다리오 - 중단된 성전재건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락함,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견하여 종교개혁과 성벽공사를 하도록 도움: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즉 BC 458년에 귀국 했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1년 즉 BC 444년에 귀국했다.

3. 유대의 달력은 바벨론의 월력을 차용하였다. 성경에는 니산월(1월), 티쉬리월(7월), 그리고 기슬르월(기슬래, 9월)이 보인다. 태양력과는 2 ~ 3달 늦다(가령, 기슬래월이 태양력으로는 12월).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는 달력이 없었을까?

종교력이라고 불리는 달력이 있었다. 유월절이 든 달이 1월이다. 민간력과 6개월 차이가 난다. 참고로 1월:니산, 2월:잇달, 3월:시반, 4월:담무스, 5월:압, 6월:엘룰, 7월:티쉬리, 8월:헤쉬반, 9월:기슬래, 10월:데벳, 11월:세발, 12월:아달, 아달세니(윤달)

4. 그냥 ‘왕궁에 있었더라’고 하면 되지 굳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궁이 여러 개 있었다는 말이다: 원래 수산은 바사의 수도였다. 후에 나라가 넓어지니까 바벨론(여름궁)과 악메다(예대 지역, 겨울궁)도 수도로 삼아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 봄, 가을에만 수산궁에서 통치했다. 그러니까 기슬르월(12월)에 수산궁에 있었다는 말은 왕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5. 하나님은 7: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친동생이다. 그가 유대에서 왔다? 형제간에 떨어져 있었다는 말인가?

집착권대 하나님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을 것이다(물론 그 전에 귀환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유대에 어려운 일이 닥치자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하러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먼저 유대의 형편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비록 외국의 왕궁에 있었지만 마음은 동족과 함께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낀다(4). 이제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야 했던 에스더와 같은 입장에 처한 셈이다.

6.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대 사람?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간 자의 소식이 궁금해야 정상 아닌가?

느헤미야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히 포로에서 놓여나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에 관한 소식이다. 바벨론에서 돌아간 사람들도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은 오래 전 바벨론의 침략시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바사의 왕궁에 안락하게 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7. 3절은 오래 전의 얘기 아닌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미 140여 년 전의 일이다. 하나님 일행이 전하는 소식은 최근의 소식이어야 옳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겪은 이런 저런 어려움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전공사도 방해받았는데 성벽이나 성문을 재건하는 일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음에 틀림없다.

8.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약속)에 근거를 둔 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분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5, 신 7:9, 21), 자신들이 이렇게 수난을 당해야 하는 것도 그 분의 말씀을 어긴 탓이요(6c-7, 레 26: 14-45, 신 28:1-66), 간구하는 내용도 그 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되새기는 셈이다(8-9, 신 30:1-4).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가장 올바른 기도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면 얼마나 복된가!

9.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네 글자로 줄인다면서?

모세오경: 신명기에 많이 등장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표현과 같다(신 5:31, 6:1, 7:11, 8:11...). 이 세 가지는 다소 어감이 다를 수는 있으나 동의어의 3중 반복인 셈이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세 가지를 어긴 셈이다. 한 가지 잘못이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사랑과 형제의 우정을 배반하는 것처럼?

10. 느헤미야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 있다면 무엇일까? 관주를 이용해서 찾아보자.

신 30:1-4: 9절은 바로 이 부분의 축약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 부분은 솔로몬이 인용해서 만약 백성들이 범죄하여 타국으로 끌려가더라도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왕상 8:46-50).

11.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가도록 버려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그렇게 간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통해서(=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자신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달라는 셈이다.

12.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구체적인 간구)은 무엇인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11):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드릴 각오를 하고 드린 기도다.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예루살렘의 처지를 듣고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움직이기 전에 기도를 드린 것이다. 기도만 하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많다!

13. 기도의 응답으로 술 관원이 되었는가?

이미 술 관원의 위치에 있었기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왕에게 청을 드리려는 것이다.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이런 일에 자신이 적절하게 쓰임받기를 결심하였던 것이다.

14.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이란 입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글인데 그 입은 다름 아닌 자신을 귀양 보낸 왕을 가리킨다. 50세를 넘어서 귀양살이 중임에도 왕을 이렇게 연모하는 노래를 불렀다. 고대에 왕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다. 신처럼 여기고 신의 행세를 한 왕도 한 둘이 아니다. 그런데,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두렵고 떨리는 바사의 왕을 가리켜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 사람(11): 왕을 가리켜 '이 사람'이라니? 불경스럽다고 모함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신격화 하지 않는다. 아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의 행세를 하려는 왕이라면 참으로 골치 아픈 인간들이다.

15. 술관원이라면 어느 정도의 직급일까?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도 '계급보다는 보직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고대나 지금이나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느냐 혹은 왕에게 얼마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느냐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다. 왕의 마실 것을 아무에게나 말기지 않는다.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자에게 말한다는 점에서 술관원은 대단히 서열이 높은 자리다.

느헤미야 2 장

1. 느헤미야가 처음 소식을 들은 것은 기슬르(기슬래) 월이었다. 니산 월은 몇 달 뒤일까?
4개월: 기슬르 월은 9월이고 니산 월은 1월(양력으로는 3-4월)이다. 이듬 해 아닌가? 유대인들은 7월(티쉬리 월)을 새해의 시작으로 보는 관습이 있으니... 어쨌거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지 반년이나 지났다. 왕이 겨울을 다 지내고 봄이 되어서 돌아온 탓이다.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다려야 했을까? 공감하게 나서지 않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린 셈이다.
2.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드렸더니 교인이 술 마셔도 괜찮은 거야?
 아닥사스다 왕은 성도가 아니잖아? 왕의 앞에 술이 있었다는 것은 왕이 잔치를 베풀었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뜻일 뿐이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시중을 드는 것과 한국의 성도가 술 마시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한국교회의 술 문제는 선교 초기의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생겨난 특별한 관습이므로 이런 구절을 인용해서 술 문제를 다루려는 것은 핏트가 어긋난 것이다.
3. 느헤미야에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 왕이 어떻게 알지?
느헤미야의 표정에서 병이 아닌 근심거리가 있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을 것: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왕의 앞에 선 사람이, 그것도 잔치의 흥을 돋우어야 할 술 관원이 근심어린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은 큰 죄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속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모양이다. 사람이 진심을 감추기는 쉽지 않다. 하나님과 왕에 대한 느헤미야의 진정성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4.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대의 왕이 허물어버린 성읍을, 더구나 중건하는 일을 중지시킨 적이 있는 일(스 4:7-23)을 재론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더구나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문제다. 왕이 관직을 명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부하는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다. 낙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물며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도록 보내달라?
5. 느헤미야는 왕을 두려워했지만 왕은 그에게 특별한 호의를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언제 돌아올 것이냐고 묻는 것(6): 보내줄 테니 그 일만 마치고는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다. 비록 포로의 후손이지만 왕의 이런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불신자에게 칭찬과 호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엡 6:5-7, 벰전 2:18). 온통 욕을 얻어먹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 부러운 일이다.
6. 느헤미야가 이런 청을 드리는 자리에 ‘왕후가 곁에 앉았더라’는 말은 도움이 됐더라는 말일까, 방해가 되었더라는 말일까?
왕후도 호의적이었다는 뜻 아닐까? 문맥상으로는 도움이 되었다는 뜻 같아 보인다: 느헤미야는 왕에게도, 왕후에게도 호의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일설에 따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나 느헤미야도 후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환관(내시)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후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7. ‘언제 돌아오겠느냐?’는 왕의 질문에 즉석에서 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다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어떤 점을 보여주는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이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거의 4개월이나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증거다. 심지어 자신을 거할 집(=총독관저인 셈)에 대해서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8. 에스라는 귀환할 때 왕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스 7:6 8:21-23). 그런데 느헤미야는 요구 사항이 많다(7:9). 누가 더 신앙적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에스라의 귀환은 전적으로 종교적인 이유였지만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적어도 길으로는, 정치적인 일로 여긴 셈이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했고 돌아오지 않아도 되지만 느헤미야는 성읍을 중건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일정한 기한 내에 마치고 돌아와야 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왕의 도움을 바라지 않은 에스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면서도 왕의 힘을 이용한 느헤미야나 동일한 신앙인이다. 누가 더 신앙적이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도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통행증(7)과 성읍 재건을 위한 재료(8)를 요청했는데 요청하지 않은 호위병(9)까지 붙여주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8).
9. 4절에서 시작된 문장은 어디서 끝이 나는가?
10절: 너무 길다. 적절하게 문장을 끊어주는 것이 좋다. 여긴 왜 이렇게 길게 이어갔는지 모르겠다. 14-20절도 그렇다.
10. 산발랏과 도비야는 어떤 관계일까?
주종관계: 호론 사람이란 뱀호론 출신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다(경사가 심한 곳에 고도가 약 180m 차이 나는 두 개의 성읍이 있었다. 그래서 위 뱀호론, 아래 뱀호론으로 불렸다.) 베냐민과 에브라

임의 경계인데(수 16:3-5, 18:13-14) 후에 에브라임에 속하였다(수 21:20-22). 그러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인이다. '중 되었던'(10)이란 말은 신하라는 뜻이다. 아마도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참고 13:28) 도비야는 바로 말의 관리였을 것이다. 눈의 가시 같은 유다지역에 힘 있는 총독이 부임하는 것은 근심거리다.

11.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고 비밀이 될까? 무너진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것마저 비밀에 부쳐야 할까? 이미 산발랏과 도비야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새로 총독이 부임한 것으로만 알았지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갑자기 공표한 느헤미야의 의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선물이었고, 대적들에게는 허를 찔린 아픔이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며칠이지만 비밀스럽게 행동한 모양이다.

12.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슨 감화를 주셨는가(12)?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것(18절 참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란 표현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성의 형편을 알아봐야겠다. 밤중에 몰래 한번 나가 보자' 이런 생각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심포를 하나만 짚는다면 '행하게 하신 일을' 다음에 짚어야 한다.

13. 느헤미야의 야간 순행은 회전이이었을까, 왕복이었을까?

왕복: 골짜기 문 용정 분문(여기까지는 힌논의 골짜기 쪽) 샘문 왕의 못 시내를 좇아 올라가서 성벽(여기까지는 기드론 골짜기 쪽) 골짜기 문으로 돌아 왔으니 왕복을 한 셈이다. 고대 성읍의 남쪽 부분(다윗성)을 1차처럼 돌아보았을 것이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벽과는 전혀 달라서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문물이다.

14.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비탈진 계곡 위에 성읍을 세웠는데 무너져 성벽을 따라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상태다. 방치되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버려진 곳이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계곡으로 내려가서 (기드론)시내를 따라 북쪽으로 더 올라갔다가 돌아왔다.

15. 성벽을 재건하자는 느헤미야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종교적 이유) 왕이 명한 일이기 때문(정치적 이유):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왕의 명령(스 4:7-23) 때문이었는데 재건하라고 명령이 났으니 패재를 부를 일이다.

16.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사람 게셀은 왕의 조서가 내렸는데도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방해할 하고 있는가?

느헤미야가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다루기 때문이다: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런 연유 탓일 것이다. 왕의 조서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면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는 말은 못할 텐데... 느헤미야는 신앙의 문제를 왕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느헤미야 3 장

1. 성전은 오래 전에 완공했다. 굳이 성벽을 쌓아야 할까?
고대인들은 언덕이나 산봉우리에 성벽을 쌓고 살았다. 성벽이 없는 곳이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다. 평지에서 농사를 지어도 외적이 침입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성벽 없는 성전은 별 거벗은 채 호랑이 앞에 선 격이다(1:3). 외적에게 무방비로 버틴 셈이다.
2. 성벽 공사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차례대로 세워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썼다.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구간별로 할당해서 동시다발로 진행함: 빠른 시일 내에 속전속결로 끝내기에는 이 방법이 적격이다.
3. 대제사장을 위시한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1)은 이들이 솔선수범하였다는 뜻일 게다. 왜 양문일까? 제사 드릴 양과 관련이 있는 걸까?
제사용 양과 염소들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더구나 이 문 곁에는 짐승들을 씻길 못(신약 시대에는 베데스다)도 있었다(요 5:2).
4. 제사장들이 건축한 양문,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는 북쪽 성벽이다(1-5). 어문(아마도 근처에 어시장이 있었을 것, 북쪽에서 오는 물고기 상인들이 출입하기 좋은 위치이므로)은 하나넬 망대 가까이 있었다. 제사장들이 왜 이 쪽을 담당했을까?
제사장들이 사역하던 성전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다: 가장 길이가 짧은 부분이기도 하다. 그 다음 부분(여전히 북쪽 벽이다)은 건축한 므레못, 므솔람, 사독도 제사장들이다.
5. 예루살렘 성벽을 왜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을까(2)? 그리고 보니 드고아 사람(5), 기브온 사람들(7)도 있네?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의 고향이며 삶의 중심지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여리고 사람들'이란 말이 이들이 현재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상들이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족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방식으로 부르기도 했다(스 2:20-35).
6. '드고아 사람들'이란 족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 에스라가 그런 방식으로 분류했던(스 2:20-35) 곳에 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족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
드고아의 귀족들이 참여치 아니한 것을 은근히 비난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지도자들이 도망치는 판에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킨 경우에 비한다면 '이름 없는 백성'을 강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귀족들이 참여치 않은 것은 아라비아 사람 개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7. 옛문(북쪽의 모퉁이 문, 왕하 14:13, 렘 31:38)에서 분문까지가 서쪽 성벽이다(6-13). 그 사이에는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는가?
넓은 성벽, 풀무망대, 골짜기 문이 있다.
8. 7절은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일정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8절은?
직종별로, 아마도 동업자 조합에 일정한 부분을 맡겼던 모양이다. 넓은 성벽이란 히스기야가 확장시킨 부분의 성벽으로 추정하는 것인데(참고, 대하 32:5) 두께가 6.7m나 되는 성벽이 발굴되었다.
9.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남녀노소(126), 반부귀천(8, 32), 지위고하(9, 12a, 15-17)를 막론하고 성벽건설에 힘을 쏟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표현이 부족해 보인다. '원근불문'이란 표현도 써야겠다. 어느 구절 때문인가?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이나 맞은편을 중수했기 때문이다(10, 23): 나쁘게 본다면 온갖 구실을 다 동원해서 노역을 시킨 것처럼 보인다.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힘을 모아 어려운 일을 감당했다는 뜻이다. 한숨은 두 부분을 맡았다(11, 23).
10. 다른 곳은 길이를 언급하지 않는데 유독 하논과 사노아 거민이 중수한 부분은 일천 규빗이라(13)고 밝히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특별히 많은 수고를 하였음을 밝히는 것: 일천 규빗은 약 450m이다. 1-5절에 언급된 서쪽 성벽이 약 210m인 것과 비교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알 수 있다.
11. 지금의 예루살렘 성과 인접한 곳에서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조그마한 성을 하나 빼앗았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아니지만 물을 구하기 좋은 곳이어서 오래 전부터 여부스 족속이 성을 쌓고 있었다. 이 성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후에 솔로몬이 북쪽의 더 높은 구릉에 성전을 세우고 시온성이라 불렀는데 두 성이 연결되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된다.)
다윗성(지금은 예루살렘 성 밖의 남쪽에 붙어있는 버려진 땅처럼 보인다): 솔로몬이 확장한 부분에서 추가로 서쪽과 북쪽으로 더 확장된 곳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다. 이 다윗성을 둘러싸고 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힌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왕의 동산'이 있었다. 그 동산으로 흘러가는 물이

- 고였던 곳이 셀라 못(후일에 실로암 못)이다. 이 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다(15).
12. 기혼의 샘물을 성벽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샘 부근에 못을 만들었다. 이것을 윗못(왕하 18:17, 사 7:3, 36:2), 혹은 실로암 못과 비교해서 '옛 못'이라 불렀는데(사 22:11), 이 못을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파서 만든 못(16):** 이 못의 물을 지표의 물길로 아래쪽 셀라 못으로 끌어들이었다. 이것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다.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침입을 대비하여 노출된 수구 대신에 터널을 뚫었다(왕하 20:20, 대하 32:30). 이 터널은 높이 1.2-2m, 폭 0.6m, 직선거리 269m였는데, S자형이라서 전장은 533m에 달한다. 그 낙차는 2.18m로서 1m에 대해 4mm의 비율이다. 남북 양 끝에서 파들어 갔는데, 접촉점을 찾는데 고심한 흔적을 보이는 듯 경도가 좌우로 굴곡하고 있다. 남쪽이 30cm 정도 높은 듯 양자가 수평이 되도록 수정되었고, 천정에는 어긋난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13. '그 다음은 000가 중수하였고'라는 표현 방식이 대부분인데 '한 부분'이라는 말이 추가 된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19-21절을 16-18절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다. 그러면 3장에서 '한 부분'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 7번(11, 19, 20, 21, 24, 27, 30): 영어로 한다면 *Another section*이다. 이 말은 한 부분 외에 '또 다른 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원문도 그렇다). 말하자면 두 못을 감당했다는 말이다. 지정된 자기 못 외에 자원해서 더 열심을 내었다는 뜻이다(20절의 '힘써').
14. 1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가까운 성벽을 세웠고, 20-21절의 바룩, 드레못도 제사장인데(10:6, 8) 이들은 대제사장의 사택이 있는 맞은 편 성벽을 구축했다(아마 두 못을 감당했을 것). 이들과 대비되는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22)이란 어떤 제사장들일까?
- 예루살렘 주변(시외)에 거주하는 제사장들:** 예루살렘 주변이 평지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평지'라는 말은 성곽으로 둘러쳐지지 않은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12:28). 제사장이 세 그룹, 즉 고위직, 시내 거주자(28-29절을 보면 이들도 두 못을 감당했다), 시외 거주자로 구분된 셈이다.
15. 성 굽이, 성 모퉁이, 왕의 윗 궁, 내어민(뜰출) 망대, 시위청(감옥?) 등의 세밀한 묘사는 알기 어려우니 접어두자. 동편에 있는 수문은 왜 수문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데?
- 기혼 샘에 가까운 문이기 때문이다. 느디님 사람들(성전의 막일꾼)이 거하던 오벨(26)은 다윗성과 시온성이 연결되는 지역의 이름이다.
16.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을 내었지만 드고아 사람들은 특별히 열심을 냈다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자.
- 지도자가 없음에도 두 못을 감당했기 때문이다(5, 27).
17. 렘 31:40에서 '말문'이라고 번역된 '마문'은 틀림없이 말과 관련된 문일 텐데 (솔로몬의) 왕궁에 이르는 길과 연결된 문이라고 추정한다. 왜 그럴까?
- 당시에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이 드나들던 문이라고 봐야 한다. 신분에 따라 출입구가 달랐다? 고대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아니, 현대에도 있는 일이다.
18. 성벽에 북문, 서문은 없었는데(성의 모습이 남쪽으로 뾰족한 형태라서 남문은 당연히 없다) 동문지기가 있으니(29) 동문은 있네?
- 이 동문지기는 성전의 동문을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이 크다(참고, 대하 31:14). 또 성경의 모든 '동문'이라는 말은 성전의 동문을 가리킨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겔 10:19, 43:4).
19. 셀레야의 아들 하나냐가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는 것(30)은 두 못을 담당했다는 의미이다. 하나냐에 대한 언급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 8절의 향품장사 하나냐가 동일인일 것이다.
20. 침방이 얼마나 크길래 침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고 하는 걸까?
- 일반 주택의 침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12:44의 '긋간', 13:7에는 '방'도 같은 단어다) 성전에 딸린 제사장의 방을 가리킬 수도 있다. 므술람이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은데다(4, 6:18), 성벽 공사가 한 바퀴 돌아서 성전 가까이 왔다는 점을 참고로 하자.
21. 기록하는 방식에 따르면 성벽공사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나는가?
- 양문에서(1) 시작해서 양문에서(32) 끝이 난다.
22.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성벽 공사에 참여한 성읍이나 그룹은 대강 몇 개인가?
- 대략 12 정도:** 여리고 사람들(2), 드고아 사람들(5), 기브온 사람과 메로롯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7), 예루살렘 지방(9, 12), 하논과 사노아 거민(13), 벨학게렘 지방(14), 벨술 지방(16), 그일라 지방(17-18), 평지의 제사장들(22). 유명한 성읍이 많이 빠진 상태다.

느헤미야 4 장

1. 산발랏이 왜 분노할까? 또, 왜 비웃을까?

분노하는 것은 자기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을 것이고 비웃는 것은 알잡아 본 것이다. 눈곱만한 권력을 가져도 도전하는 자를 그냥 둘 수는 없는 모양이다? 자기가 맡은 지역만 잘 돌보면 필텐데 왜 남의 잘 되는 꼴을 견디지 못하는가?

2. 연극이나 영화에 비한다면 도비야는 무슨 역할인가?

조연: 이 도령의 방자나 춘향의 향단 역할이다. 조연은 주연의 말에 장단을 잘 맞춰야 하는데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는 도비야의 과장된 말은 그 역할에 아주 적절해 보인다. 조연이 맞는 말, 정확한 말을 하면 주연이 빛을 잃는다.

3. 공사가 절반에 이를 때까지는 방해하는 일이 말뿐(심리전)이었다. 그러면 말로 대적해야지! 말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대적자들이 하는 말과 성도가 하는 말은 다른가?

대적자들이 하는 말은 조롱이나 욕이고, 성도가 하는 말은 기도다. 성도가 대적자를 향해서 조롱하거나 욕을 하는 수도 있을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그리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잘 되면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4. 원수가 멸망당하기를 비는 기도(4:5)는 해도 괜찮은가?

그리 좋은 기도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할 이유도 없다. 심판이나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원수니까 그런 기도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도 있다. 차라리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더 좋을 것이다.

5.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벽 공사를 절반이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백성들의 마음(6):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가지 못한다. 질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적은 인원, 적은 자원으로도 큰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마음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다.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6. 대적들이 자꾸 는다. 처음에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근심하더니(2:10),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비방하더니(2:19), 공사가 절반쯤 진척되자 누가 합세하는가?

암몬 사람들(동쪽)과 아스돗 사람들(서쪽)이 합세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으니 자기 동족들을 설득했을 터이고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로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앙숙이니까 아마도 산발랏이 열심히 돌부시고 다녀서 세력을 모았을 것이다. '원수의 원수는 친구다' 이러면서!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산발랏)은 북쪽에 있으니 결국은 사방에서 포위한 형국이다.

7.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하려는 것(8)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이라는 말은 음모를 꾸몄다는 말이다. 왜 이 일이 정당하게 적과 싸우는 일이 아닌가?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이다. 서로 간섭할 수 없는 사이이다. 더구나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을 받고 시행하는 일이니 엄밀히 따지면 산발랏이 왕에게 반역하는 꼴이다. 교회도 정당하지 못한 반대나 방해할 많이 받는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진재로 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대부분 시기심이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8. 대적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것 아닌가?

기도만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다. 대적이 쳐들어올 판이니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웠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출 14:14, 신 27:9, 삼상 12:16, 사 30:15, 37:14-20),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 해야 할 때도 있다(2:4-5, 4:6, 14, 에 4:16).

9. 성벽 공사는 애초에 벅찬 일이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했는데(6) 갑자기 낙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10)은 산발랏과 그 일당 때문이다. 할 일이 많은 것이야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때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을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14) =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한 때 감격하며 기꺼이 행하던 일도 자그마한 변화 때문에 짜증나고 힘든 일로 변해버리기 일쑤다. 처음의 마음, 처음의 감격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믿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처음 사랑, 처음 감격, 어려웠던 시절의 각오,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다.

10. 산발랏도 합부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왕에 대한 반역이라는 죄가 될 수도 있으니 잔머리를 굴리는 셈이다. 직접 공격하는 대신 어떤 수단을 쓰는가?

대적의 근처에(유대의 외곽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함으로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분산시키려함: 예루살렘 수비뿐만 아니라 고향을 지켜야 한다면 가뜰이나 손이 모자라는 판에 공사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닦달하게 했으니 일단은 효력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있으니 합부로 양민을 칠 수는 없는 일이다.

11.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다고?(15) 어디 갔었던가?

공사를 중지하고 전투태세를 취했었다(13-14): '성 뒤 낮고 넓은 곳'이란 취약한 곳이며 동시에 대적에게 잘 보이는 곳이다. 그 곳에서 군대를 편성하고 무기를 잡고 싸울 태세를 갖췄더니(=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대적들이 기습할 생각을 포기했더라(=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셨다)는 것이다. 애초에 산발랏이 길게 싸울 생각은 없기 때문(=15절의 '자기의 뜻')이다. 길게 끌었다가 왕에게 말이 들어가면 자신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12. 전투를 해본 적도,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일꾼들을 급하게 병사로 둔갑을 시켰으니 제대로 된 군사가 될 수도 없지만 사기만은 높았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격려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가쪽을 위해서 싸우라(14): 아주 효과적인 격려였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발인 일인데다 부대 편성도 종족별로 하였는데 가쪽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하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용감해질 수 있다.

13. 산발랏의 악한 꾀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자 대적들이 일단 물러갔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공사를 계속한다. 무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몇 개의 그룹이 있는가(16-18)?

세 그룹, 수비 전담 병사(16)와 한 손에 무기를 든 자(17)와 칼을 찬 자(18): 이 때부터 느헤미야가 직접 관리하는 친위대(=종자)는 절반은 무장을 하고 수비를 전담했다. 유다 온 족속은 민장(부족의 지도자)이 관리(중간관리를 통한 간접 통제)하는데 일부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공사를 했다(17). 두 손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건축자들은 칼을 차야 했다(18). 그러다가 나팔을 불면 즉시 군대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편성한 셈이다. 한 손으로 일하는 사람과 두 손으로 일해야 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마도 기술자와 돕는 자의 차이 아닐까!

14. 건축하는 일만 해도 손이 모자라는 판인데 나팔 부는 자는 뭐야?

전령이나 신호수: 아마도 나팔 소리로 신호하거나 급한 명령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악기가 아니라 통신기기다(19-20).

15.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까?

우리가 싸울 때(20): 나팔 소리를 듣고 싸우기 위해서 달려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숨어 있자? 어리석은 믿음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균형 잡힌 신앙의 소유자였다.

16. 새삼스럽게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는 것(22)과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23)은 그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인가?

훨씬 더 긴장하였다: 예루살렘 근교에서 출퇴근하면서 일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퇴근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비상소집된 셈이다.

17. 23절의 '기계'는 무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왜 기계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원문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핵심은 무엇일까?

어떤 경우에도 무기를 놓지 않았다: 이 문장의 원문은 세 개의 명사가 나열된 불완전한 문장이다 (각 사람, 그의 무기, 물<혹은 오른손의 오류?>). 그래서 이론이 많지만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말이다.

느헤미야 5 장

1. 자녀는 많은데 흉년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곡식을 구해야 한다(2) 어떻게? 빛을 내는 수밖에 없다(3) 이게 비극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를 대비해야 한다. 흉년은 오게 마련이다.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은목제도는 왜 만드나? 홀사모를 돕자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뭐야?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어려운 때를 대비해야 한다. 당장에 먹을 것도 없는데 훗날을 어떻게 대비하나? 그래도 해야 한다.

2.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이 누구 혹은 무엇 탓인가?

많은 식구들(2) 흉년(3) 세금(4) 취리(7): 복합적이다. 취리가 주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안 되는 일이었다. 형제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데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온 것이다.

3.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모양인데 왜 그 형제 유다 사람을 향해서 울부짖는가? 취리(7), 전당(3), 빚내어(4), 자녀를 종으로 판다(5)는 등의 표현을 중심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자.

취리(7): 전당(3) 빚내어(4) 라는 표현을 보면 형제 유다 사람은 고리대금업자다. 이들에게 전당 잡히고 빚을 내어 양식을 구하고 세금을 냈지만 흉년이 들어 값을 능력이 없는 탓에 자녀를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5).

4. '너희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닌 줄 아느냐? 너희 자녀만 귀하고 우리 자녀는 귀하지 않은 줄 아느냐?' 이 말이 맞는 말인가?

능력이 있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빛을 값은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다(옳은 말로서 의 효력이 없으니 틀린 말이나 다름없다)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할 능력의 문제다(5절 끝에 '힘이 없도다') 내 말이 맞는 말이 되도록 평소에 힘(실력)을 길러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이나 국가적으로도 그렇다. 안타깝지만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맞는 말도 말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남의 자비만 기대할 수밖에 없다.

5. 빛을 낼 때 못 값이면 몸이라도 팔아서 값겠다고 약속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 빛을 못 값이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레 25:39-40)? 율법에도 허용된 일일뿐 아니라 더구나 이스라엘의 종은 그냥 품꾼일 뿐인데?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시절에 딸을 식모살이 보내는 것도 그렇게 서러웠다. 아무리 품꾼으로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자식을 종으로 보내는 것은 끔찍스런 고통이다. 같은 동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다.

6. 느헤미야도 분을 내고(6) 사람을 치네(7)? 소위, 목사가 치는 것(?)과 좀 다른가?

하나님의 분노와 일치한다면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는데 목사가 분노하는 것이 문제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소리치셨다.

7. 화가 많이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많다. 지도자는 그래서 안 된다. 느헤미야는 크게 화가 나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중심에 계획(7) 이 화나게 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냄비 끓듯이 펄펄 뛰다가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식어버리는 화는 자신의 감정을 푸는 일일뿐!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분노는 계산된 분노다. 그리하여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는 말이다. 종교 지도자로 왔던 에스라의 반응과는 다르다(스 9:3). 중심은 같을지라도 직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돌보려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

8. 취리(取利)? 이자를 취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은행은 다 문 닫으라는 말인가?

고리(高利)를 말한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약탈을 일삼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흔히 악덕 사채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처럼 가난한 형제의 등을 친 사람들이 문제다.

9.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신다.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리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풀어줘야 한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본문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자유를 줬기 때문(8절,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 하였거늘): 그래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하셨다(신 17:16, 28:68, 출 13:17). 형제를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출 21:8).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형제가 그를 속량해야 했다(레 25:47-49).

10.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고 잠잠한 귀인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권력이 무서웠을까, 아니면 그의 논리적인 설득에 감동한 것일까?

권력자가 논리적이면 그만큼 더 위력적이다. 아마 양 쪽에 해당하겠지만 겁도 없이 이런 만행을 저지를 사람이라면 권력을 두려워하는 쪽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11.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야 하나? 불신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나?

불신자들의 눈치를 볼 것은 봐야 한다: 불신자들이 배교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눈치 볼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심

함께 눈치를 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해서 이방사람의 비방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롬 2:24)

12. 둘러보내자고 하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은 전당 잡은 것이며, 취한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11)은 이자인 것 같다. 1%라면 높은 게 아닌데?

아마 월리(月利)인 것 같다: 그러면 연 12%인데 그래도 절대로 높은 편이 아니다. 다만 어려운 시기에, 또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다 같이 수고하는 은혜의 때에 가난한 이웃에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포기하자는 것이다(출 22:25, 레 25:35-36).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런 잘못도 아닌 일이 성도의 눈으로 보면 아주 악한 일일 수도 있다.

13. 말만으로 안 되고 맹세까지 시켜야 하는가(12)?

단체로,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인 약속을 개인적인 신앙적인 맹세로 바꾸는 것이다. 일을 확실하게 매듭짓는 일이다. 오늘날 구두 약속을 문서화해서 공증을 받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이다. 느헤미야의 일하는 습씨가 참으로 야무지다.

14. 옷자락을 터는 행위는 하나의 상징이다.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옷자락에 뭔가를 담았다가 털어버리면 깨끗하게 비워지는 것처럼 집이고 산업이 깨끗하게 사라져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예수님의 상징에서는(마 10:14) 떨어지는 먼지가 그들의 처지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텅빈 옷자락이 상징이다.

15. 느헤미야의 이런 요구는 일종의 개혁이다. 보통 이런 유의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유는 힘이 있는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14-18에서 한 가지를 찾는다면?

솔선수범: 청렴결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불의한 것을 노리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이 앞장서서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16. 총독이 녹을 먹지 않는 것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혜택이 되나?

총독은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먹기 때문: 그러니까 왕이 국고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역에서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거두어야 했다(예수님 당시의 세리처럼). 그런데 총독이 자신의 녹을 거두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 문제는 액수도 액수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해서 총독이 세금을 줄여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바울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것보다(고전 9:7-15)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크다. 총독의 생활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17. 느헤미야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15):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모든 의도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왔을 것이다.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도 많지만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 여기서 나와야 한다.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디서 엄청난 총독의 생활비를 조달했을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걱정부터 한다.

18.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과 어떻게 다른가?

돈에 욕심내지 않고(당연한 권리까지 포기함), 일을 잘 하고(전 총독들이나 귀족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 아래 사람들을 잘 관리하여(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렵나 보더라)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였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다. 부럽다!

19. 매일 소 한 마리, 살진 양 여섯, 닭도 많이 소비한 것은 무슨 자랑인가?

총독의 식사만 해도 이 정도였으니 총독으로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녹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는 뜻이다.

20.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내세워도 될까(19)?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도 된다: 이유는 이 말이 자신의 선행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아는 성도가 '이거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내놓는 것은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신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내 미는 손 때 묻은 과자 한 조각이나 마찬가지다.

느헤미야 6 장

1.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일을 포기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짓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정리해 보자.

음모(1-4절), 모함(5-9절), 협박(10-14절) 유다 전체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무리임을 깨닫고 느헤미야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유능한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 외형상으로는 덜 위협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더 무서운 일이다. 이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2. 성문에 문짝을 달면 모든 공사가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이 하는 짓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마지막 몸부림(=발악?)

3. 1절에 있던 도비야가 2절에는 왜 없을까?

산발랏과 게셈이 마치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게셈은 아라비아의 족장이며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이다. 산발랏의 수족인 도비야가 필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4. 한번 거절하면 포기하지 네 번이나(4) 외교적 결례가 아닌가?

어차피 발악을 하는 판에 체면이 무슨 소용인가?

5. 편지를 봉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힘을 빌릴 수 있다: 헛소문을 퍼뜨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 느헤미야가 엉뚱한 욕심을 품고 있었다면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급히 달려가는 수도 있을 것이다.

6.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 것이다. 느헤미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산발랏의 생각으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선지자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것(7):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모략이나 계략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느헤미야로서는 선지자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산발랏으로서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계략의 하나일 뿐이다. 가스무는 게셈을 가리킨다(같은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과 아라비아식 발음의 차이).

7. 왕의 힘을 빌려 일을 중지시키려고 한다면 무슨 굴레를 쉬우는 것이 제일 효력이 있을까?

'모반' 혹은 '반역'(6): 이번에는 구두탄으로 끝났지만 이전에는 이런 모함이 효력을 발휘한 적이 있다. 성벽 재건(스 4:11-23) 성전 건축(스 4:24)이 중단되기도 했다.

8. 산발랏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애를 쓰는 걸까(7)? 왕의 등장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을까? 느헤미야 시대에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말라기가 활동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말라기서에 '왕의 등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있을까?

없다: 말라기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말 3:1-5) '왕의 등장'으로 오해할 여지가 없다. 차라리 약 1세기 이전에 활동했던 학개, 스가랴에는 억지로 끌어다 붙일 표현이라도 있다(학 2:22, 스 9:9) 말도 안 되는 말로 모함하려는 사람은 이런 억지라도 부리려고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읽혀지기 때문이다(8).

9. 산발랏의 이런 모함이 혹시라도 왕에게 먹혀들면 어떡하지?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냈다(9):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불신자와 다른 점은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에 굴복 당하지 않는 것이다.

10. 선지자인 스마야가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일인가 해서 집에 찾아갔더니 두려워 떨며 '성전에 숨자'고 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처럼 말이다. 이런 판국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두려워 않고 거짓 예언인 것을 눈치 챘을까?

성벽 건축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아마도 예언의 내용이 도무지 선지자답지 못한 것이었을 것이다.

11. '나 같은 자'와 '나 같은 몸'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 같은 자'는 총독, 즉 지도자가 두려워 도망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고, '나 같은 몸'은 제사장이 아닌 자가 합부로 성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민 18:7).

12.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 선지자는 있을 수 있는 모양이다(13-14) 분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능력을 기르고 주의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거짓 스승이나 사이비가 들끓고 있으니 맹목적인 신앙은 위협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13.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 성공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두렵게 함, 범죄함, 비방거리가 됨(13): 지도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데다 그렇게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좋은 비방거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14. 백성들이 이렇게 수고하는데 귀인들이 오히려 대적의 편을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17-18)?

가난한 자를 돌아보자는 느헤미야의 정책(5:1-13)이 귀인들에게 반감을 산 모양이다. 동시에 이들은 산발랏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였다(18). 느헤미야가 이것을 끊어버린 탓이다(2:20).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득권층이다. 민족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다.

15. 엘룰월 (1장의 3번 참고)은 종교력으로 6월, 일반력으로는 12월, 태양력으로는 8, 9월이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치면 7월 중순에 시작해서 9월 초순에 끝난 셈이다. 왜 한여름에 이런 공사를 했을까?

유대에서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계절이다(지중해성 기후)

16. 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관계에 있었네! 이방인 아내를 내어보낸 일이 있었는데 언제였지?

에스라 시대(스 9-10): 고통스런 개혁을 시도했던 에스라의 노력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잊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망한다고 하던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런 짓을 저지르고 말다니! 이런 게 인생인가? 스가냐나(3:29) 므솔람은 3:4, 30) 유다의 유력한 가문이었던 것 같다.

느헤미야 7 장

1. 성벽을 완공한 일과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관계가 있지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무슨 상관인가?

이 세 부류는 전부 레위인들이며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성벽을 파수하는 것도 성전을 돌보는 것과 직결된 것이라고 여기고 주로 레위인들에게 맡긴 것 같다.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문지기가 교대를 하거나 문을 여닫을 때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당연히 나팔이나 다른 악기도 동원됐을 것이다. 요즈음 의장대나 군악대 역할 아닐까?

2. 하나냐는 신앙이 좋아서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니는 형님을 잘 뒤서?

수산 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아픈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하나니다(1:2). 보통 열심이 아니다. 단순하게 형님 덕에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3. 성문을 열고 닫는 지침을(3)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늦게 열고 일찍 닫으라: 정상적이라면 해가 뜰 때 성문이 열린다(창 44:3) 더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완전하게 활동을 시작한 후에 열고, 그 만큼 일찍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여전히 비상시국이었다는 말이다.

4.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광대한 성이 아닌데(4)?

그만큼 인구가 적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계수한 것도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기 위한(11:1-2) 준비 과정이었을 것이다.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성벽을 완공했지만 예루살렘을 지켜낼 인구가 부족한 것을 절감하고 인구유입책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5.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에스라가 이미 이런 명단을 작성했었는데 왜 '처음으로 보계를 얻었다'고 하는 걸까?

5절의 '처음으로'란 표현은 '얻었는데'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의 '돌아온'을 수식한다('처음에'라고 번역했다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다시 말하면 최초 귀환자의 명단을 얻었다는 뜻이다(에스라 2장의 족보와 비교해 보면 골격은 거의 같지만 숫자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새로 계수한 것과 비교해보면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겨버린 자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6. 일차 귀환 때의 지도자들의 명단인 7절을 스 2:2절과 비교해 보자.

거의 일치하지만 '나하마니'가 추가되었고 '야사랴(스라야), 라야야(르엘리야), 미스베렛(미스발), 느훔(르훔)의 철자가 약간 다르다.

7. 7절에 등장하는 유다공동체의 지도자들 중에 혹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말하자면 유다의 왕족의 후손이 누구겠느냐는 것이다. 바벨론에서 명목상이지만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 것은 여호야긴인데(왕하 25:27-30)?

스룹바벨: 여호야긴(여고냐)의 손자다.

8. 백성들을 인솔한 지도자 중에 스룹바벨 외에 또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느헤미야와 모르드개는 있지만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1세기 후에 등장함)와 모르드개(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은 60년 쯤 후의 일)가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혹시 안면이 있는 이름이 있어도(예수아, 바아나 등) 동명이인이다.

9. 지도자들(7)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8-60)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가?

1) **가문에 따른 분류(8-24):** 계보(가문등록부)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다(인명을 써서 000 자손이라고 기록되었음).

2) **지역에 따른 분류(25-38):** 계보는 잃어버렸지만 조상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다(지명을 써서 000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음,)

3) **제사장들(39-42).**

4) **레위 사람들(43-45).**

5) **느디님 사람들(46-56):** 성전의 막일을 돕던 이방인 출신들이다(스 8:20). 여호수야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 패며 물 길는 자가 된 것처럼(수 9:23-27) 포로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많다(민 31:27-30, 46).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의 이름이나 이방신과 관련된 이름이 많기 때문이다(느디님, 르신, 야스나, 시스라). '느디님'은 '주어진 자들'이란 뜻으로 레위인들을 돕도록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6) **솔로몬의 심복(57-60):** 왕궁의 막일을 돕던 이방인 출신들이다. 전쟁포로처럼 이방인으로서 귀화한 유대인이다. '심복'이라고 번역된 말(에베드)은 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느디님 사람과 같이 취급되는 것(58)도 이 사람들과 비슷한 신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종이고, 이들은 왕궁의 종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왜 귀환하는 걸까? 차라리 바사에 그냥 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는데? 이들도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국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자들의 명단만큼이나 명예로운 자들이다.

7) **가계나 고향을 입증할 수 없는 사람들(61-65):** 혈통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거의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귀환은 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셈이다.

10. 8절에서 24절까지는 가계에 따른 분류지만 25절에서 38절까지는 지역(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따른 분류다. 왜 이전처럼 지파별로 하지도 않고 더구나 지역별로 분류를 했을까?

지파 개념이 무너지는 셈이며 더구나 자신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 지파라고 해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이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앗수르에 멸망하면서 이방인과 혼합되어 버렸다. 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8-24) 조상들의 거주지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25-38) 아예 가계도 고향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61-65). 가계나 조상의 거주지를 기억하는 것만도 여호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언젠가 돌아갈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을 남겨두는 것은 훗날 이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것이다.

11. 포로로 지내는 와중에 지파별 개념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가장 분명하게 명맥을 잇는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

레위(39-45): 아마도 그들이 맡은 특별한 사역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자 레위인들이 대거 남쪽 유다로 넘어온(대하 11:16) 덕분에 이들은 여전히 지파로서 생존하고 있는 셈이다. 제사장, 노래하는 자, 문지기 등은 전부 레위 지파가 맡은 역할이다.

12. 돌아온 제사장의 수는 $973 + 1,052 + 1,247 + 1,017 = 4,289$ 명이다(39-42). 반면에 이들을 도와야 할 레위인들은 몇 명인가(43-45)?

360명(74 + 148 + 138: 스 2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분수다. 머리는 엄청 큰데 몸통은 10분의 1도 안 된다. 몸통이 더 커야 정상인데?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적었을까? 아마도 그들이 성전에서 하던 일을 가볍게 여긴 탓이 아닐까? 별 볼일 없는(?) 일을 하려고 생활기반을 버리고 그 먼 길을 가야 하나? 아마 이런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목사는 훌륭하고 집사는 보잘 것 없는 머슴일 뿐이라는 생각처럼 교회를 허무는 생각이 또 있을까?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렘전 2:9)..

13. 텔멜라와 텔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61)은 페르시아 지역의 이름이다. 여기에서 온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귀환자의 대열에 끼였을까?

자신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 보면 족보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포로생활 중에서도 자신의 계보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모양이다. 부모와 친척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고아가 아니라면 계보를 소홀히 여기 죄가 크다. 본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쟁 통에도 자신의 학력,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휴대하던데 하물며 스스로 유대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14. 족보를 잃어버린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

제사장의 권리를 박탈당함(63-65): 우림과 둠임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던 도구였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들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 더 이상 이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성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분배되던 양식을 주지 말라는 것이니 제사장의 역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15.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인데 노비가 7,337명이면 많은가?

다른 짐승들의 수를 감안하면 대단히 많은 숫자다: 말 730, 노새 425, 약대 435, 나귀 6,720 이니 요즈음 식으로 하면 가정당 한 대씩 트럭이나 경운기가 있고 머슴이 있는 셈이다. 67절의 '노래하는 남녀'는 아마도 부유한 자들이 고용한 음악가일 가능성이 높다. 나름대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귀환한 셈이다.

16. 다릭은 페르시아 금화로 8.4g이다. 현재 화폐로 환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대략 계산이라도 해보자.

$61,000$ 다릭 $\times 8.4g = 512,400g$ (15달란트, 136,637돈)이다. 요즈음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1돈에 20만원으로 환산하면 거의 300억에 가깝다.

17. 본성이 어디기에 이들이 모두 본성에 거하였는가(73)?

자기들이 본래 거하던 성(their own towns): 그러니까 레위인(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과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들(느디님 사람들)이 거한 본성은 예루살렘이다. 그 가운데 끼인 백성 몇은 성전과 관계없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사람이다. 나머지 사람들도 본래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느헤미야 8 장

1. 성벽을 완성한 날은 6월 25일이다(6:15). 겨우 며칠 뒤인 7월에 백성들이 왜 모였지(1, 스 3:1)? 이 유를 설명도 하지 않고?

아는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다 안다(종교력으로 7월은 일반적으로 1월). 1일은 나팔절(신년 축제일, 2), 10일은 속죄일, 15-22일은 초막절(수장절, 장막절)이다(14, 16, 18). 1-7장은 성벽 재건에 대한 기록이다. 반면에 이제부터는 신앙의 회복, 즉 언약의 갱신(8-10장), 언약에 대한 순종(11-13장)의 내용으로 이어진다.

2.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인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에스라와 어떻게 일을 분담하고 있는가?

성벽공사는 총독인 느헤미야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했다! 에스라에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한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있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쳤겠지만 이렇게 거국적인 집회를 열어서 말씀을 가르친 기록은 없다.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는 느헤미야의 도움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에스라에게 느헤미야가, 베드로에게 요한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다.

3. 명절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제사를 드리면 되지 굳이 율법책을 읽어주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결국은 미신으로 흘러버린다. 말씀이 없는 계시, 꿈, 이적도 마찬가지로(참고, 암 8:11-13). 의미 없는 암기는 주문이 되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알아 들을 만한 회중은 전부 다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4. 읽어주기만 하면 될 일이라면 굳이 에스라가 아니라도 무슨 상관인가?

깨닫게 함(7-8): 단순하게 읽어주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학사’ 에스라라는 표현은 그가 말씀을 잘 깨달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5. 왜 새벽부터 오정까지 말씀을 들었을까? 아침도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아마 날씨 탓 아닐까? 시원한 때에 시작해서 뜨거워지기 전에 마치려는 것 아닐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다. 이런 열심이 이들을 살린다.

6. 집회를 위해서 대형 무대처럼 높은 강단을 특별히 설치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다. 에스라 좌우에 각각 6명, 7명씩 나란히 섰다. 어떤 모습이 연상되는가?

특별한 예배에 특별순서를 맡은 분들이 여럿 참석하는 것: 특별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마도 돌아가며 율법을 낭독하지 않았을까?

7. 책을 펴는데 왜 일어섰을까(5)?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다. 높은 분이 입장할 때 일어서서 예를 표하는 것처럼! 찬송 부를 때 일어서는 것도 그런 의미이다.

8. 집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어떤 순서를 가졌는가?

찬양: 여호와를 송축하였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우리 예배 순서에서 앞쪽의 영광송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다.

9.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하고(강단에 다른 분들도 많았으니 혹시 이들이 낭독?) 가르치는 것을 레위 사람들이 했다면(7, 9) 굳이 학사 에스라가 왜 필요한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배석한 제사장들이(?) 성경을 봉독하고 에스라가 설교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분반공부를 인도한 것 아닐까? 당시 백성들이 주로 쓰는 언어는 아람어인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으니 가르칠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다.

10. 율법을 들고 왜 올까?

슬퍼서 올었다(9-11).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셈이다. 지도자들의 권고사항은 ‘몰라서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자는 권고인 셈이다.

11.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힘이 되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바르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광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세상의 그 무엇이 두려울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새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며 그 목적을 바르게 알 때 가장 힘이 넘치는 것은 당연하다. 공부를 잘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학생이다. 그리스도인이 늘 심각하거나, 늘 울며 지내는 것은 잘못이다(12). 진정으로 기뻐해야 한다. 더구나 오늘은(7월 1일)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나팔절이니!

12.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없다. 사본은 대단히 많다. 그 중에서도 고대사본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진정한 성경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12)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비싸게 취급되더라도 그 의미가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골동품일 뿐이다. 이스라엘 사람치고 율법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13.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밝히 알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다(13).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에스라가 '학사'로서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말씀의 실력자? 목사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을 수 있다. 더 잘 가르치는 목사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4. 말씀을 밝히 안다는 것(12, 13)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깨달은 바를 바로 실천하는 것(16)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읽고 당장에 나가서 초막을 지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15. 1-12절의 사건은 7월 1일이고 지도자들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발견한 것은 그 이튿날이다. 백성들이 바로 초막을 지었을까? (실제로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다.)

말씀을 연구하던 중 초막절에 관한 규정만 발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말씀대로 행한 대표적인 예만 기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다시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초막절이 되자 초막절을 지켰을 것이다.

16.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초막을 짓는가?

광야에서 장막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려고: 출애굽 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셨음을 회상하는 절기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을 것이다.

17. 그렇게 은혜로웠던 여호수아의 때에 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을까(17)?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도? 초막절과 뉘랴 뉘 수도 없는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을까?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왕상 8:2, 65, 스 3:4) 이번보다 더 초막절을 초막절답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가장 감격스럽고 기쁘게 지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는 말은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느헤미야 9 장

1. 24일이면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난 이를 뒤다. 초하룻날 말씀을 듣고 울었다(8:9). 7월 10일이 대속 죄일이니 이 날 속죄의식을 치렀을 것이다. 그런 다음 초막절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고 왜 또 모였을까?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온전하게 회개한 느낌이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진심으로, 온전하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가지고 싶었던 모양이다. 금식하며 굶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쓴 것(재를 퍼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사 58:5). 옷을 찢기도 하는데...

2. 낮의 사분지 일? 낮을 어떻게 사등분 했을까?

지금 식으로 하면 6-9시와 9-12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오정까지는(8:3) 낮의 2분의 일인 셈이다. 당시에는 하루를 8등분 했던 모양이다.

3.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에 유다 지방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으니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섞여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려면 이들과의 교제도 끊어야 하는가?

이방 사람과 교제를 끊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신 7:1-4). 그러나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이런 원칙이 완전히 훼손되어버린 것이다. 이방인과 이웃하여 살더라도 이런 원칙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삶의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다. 오늘 우리는 훨씬 더 줄어들었다. 불신자들과 날마다 부대끼며 살면서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영역은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복과 경배(2, 3, 행 3:19):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행 2:37-38).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5. 대에(단 위에) 올라선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셈인가?

기도회 인도: 앞장서서 기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는 모습이 단체로 찬송하며 기도회를 인도하는 모습과 닮았다. 아마도 이들은 본래 말씀을 가르치거나 찬양을 부르던 사람들이었으리라.

6. 레위인들이 정말 긴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7-38),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행한 것(5-6)을 오늘날의 예배순서에서 찾는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영광송: 예배에서 처음 부르는 찬송을 영광송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것을 감안하면 중요한 순서이다. 이 때에 다른 일반적인 찬송가를 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사 43:21) 그렇게 해야 한다.

7.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5-6절에서 찾는다면 무엇인가?

영원하신 분(5) 창조주(6): 그래서 그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한 것이다(5). 만물의 영원한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것이다.

8. 긴 기도를(7-38) 내용에 따라 대략 6단락(7-8, 9-10, 11-17, 18-22, 23-31, 32-38)으로 나눈다면 각 단락에 적당한 이름을 붙여보자.

7-8(선택), 9-10(구속), 11-17(양육), 18-22(훈련), 23-31(배신), 32-38(징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습과 많이 닮았다. 잘 자라 주면 얼마나 고마운가!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문제를 기르는 아버지와 같다. 시대별로 분류하면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포로시대'로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9.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에 비유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아들인 셈인가?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문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충성'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8)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작품이었다(창세기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임).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람(수 24:2)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람의 공로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온갖 은혜를 다 베풀었음에도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아버지가 아들의 역사를 잡고 경찰서에 인계한 형국이다.

10. 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시는가(8)?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대로(창 15:13-14) 지키셨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훑어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은 아니다. 본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뿐이다.

11. 8절은 7절의 결론이면서 9-25절의 요약이라고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한 얘기를 출애굽 사

근보다 먼저 언급한 것이 이해된다. 그러면 9절에 홍해에서 부르짖은 것은 왜 다른 이적과 기사보다 먼저 언급했을까? 홍해 기사는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것)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느라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언급한 셈이다.

12.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7-15).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가?

패역으로(16-17):

13. 이적과 기사, 홍해를 건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율법을 주신 것, 양식과 물을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왜 그럴까?

율법을 주신 것: 다른 것은 일회성이거나 일시적인 것이다. 율법은 그에 비하면 영원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다(출 19:4-6, 신 7:9). 그래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다(13). 교칙을 기쁘게 여기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도로교통법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학생을 학생답게 하고 각종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이런 법을 정말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14. 느헤미야 당시에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규례가 안식일 규례였던 모양이다(14).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티를 내는 것이기 때문(출 31:13, 골 20:12):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는 말이 있다. 로마에서는 안식일에 일체의 행동을 멈춰버리는 유대인들을 아예 징집대상에서 빼버린 적도 있다(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안식을 이루시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발전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히 4:8).

15. 교만한 인간은 목을 굳게 하여 명령을 듣지 않는다(16, 17). 이스라엘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수두룩하다(출 32:9, 신 10:16, 렘 7:26). 이 표현이 교만한 인간을 어디에 비유하는 말일까?

말을 듣지 않고 뺨대는 황소: 비유가 아니라도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인간은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말에도 '황소고집'이라는 말이 있다. 황소가 좀 그런 모양이다. 결국은 명예를 뒤집어쓰게 마련이다.

16. 하나님은 동작이 대단히 느리시다. 특히 어떨 때?

노하실 때(17):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철없는 아이의 응석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현명한 아버지는 인내하고 기다리실 때도 많다. 메시아를 보내실 때? 심판을 속히 행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일찍 사라졌을 것이다.

17.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17, 민 14:3)은 얼마나 못된 짓인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뒤엎는 짓이다. 아니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역사를 내팽개치는, 정말 고약한 짓이다. 그래도 노하기를 더디 하셨다(민 14:19-20)!

18. 송아지를 부어 만든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것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어떻게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보다 더 큰 잘못일까?

직접적인 반역이며, 시기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직후의 일이기 때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반항이라면 송아지 사건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묵도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흔히 하는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의 일이므로 하나님을 심하게 업신여긴 것이다.

19. 하나님께서 선한 신을 주셨다고(20)?

성령을 가리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출 19:16-19, 신 4:12)은 정말 특별하고도 특별한 경우일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위험하기도 하다(출 19:22, 24, 신 18:16). 일반적으로는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케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다(민 11:17).

20.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2절과 24절의 땅은 어떻게 다른가?

요단 강 동편 땅과 서편 땅: 시혼은 모압 북쪽, 바산은 시혼의 북쪽 땅으로 둘 다 요단 동편이다.

21. 땅을 차지하고 아름다운 것을 먹고 배부르면(24-25)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나님의 걱정은 배부르고 살찌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다(신 8:11-14). 미리 조심하라! 그렇게 당부했건만 거역코 걱정하던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26). 이러니 복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할까?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22. 여리고나 아이성을 쉽게 점령하던데 실제로 견고한 성이었을까?
실제로는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리고 백성들이 싸울 생각도 않고 성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도 그 성의 견고함을 믿은 증거다. 실제로 그 견고함을 보고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다(민 13:28).
23.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나 이스라엘이 배신하게 되자 매를 드셨다. 다시 주께 부르짖으면 긍휼을 베푸셨다. 평강을 얻으면 다시 악을 행하고 대적에게 환난을 당하고... 사사 시대에 이런 짓을 몇 번이나 반복 했는가?
최소한 8번(사사기에 7번, 삼상에 1번): 웃니엘(삿 3:7-11), 예훗(삿 3:12-30), 삼갈, 드보라와 바락(삿 3:31-5:31), 기드온(삿 6:1-8:32), 들라와 야일(삿 8:33-10:5), 입다, 입산, 엘론, 압돈(삿 10:6-12:15), 삼손(삿 13-16장), 엘리와 사무엘(삼상 1-7장). 한 사람이 이랬다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24. 23-25절은 사사시대, 32-38은 왕정시대를 가리킨다. 그러면 26-31절은 뭘까?
전 역사 기간을 포괄하는 표현: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왕정시대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배신행위는 어느 한 시대의 일이 아니다. 전 역사가 반역과 패역의 역사다.
25.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명은 귀찮은 것이나 답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의 것인가?
생명의 법(29):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얻는 법이다. 안전벨트는 사람을 귀찮게 묶어 두는 줄이 아니다.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율법은 오래도록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신 5:33, 11:21).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낙을 다 포기해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26. 이스라엘이 잘 하는 일인데(29) '어깨를 내어 밀고, 목을 굳게 하다'는 말을 한 마디로 줄인다 면?
뺨대다: 싸를할 때 살바를 내주지 않으려고 싸우는 모습을 연상하면 비슷하겠다. 이런 모습이 길 어지면 관중들은 짜증이 난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나 짐승이 말을 듣지 않고 뒷걸음치거나 멧애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할 것이다.
27. 반복해서 용서하신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아주 멸하지 않고 버리시지도 않으신 일(31): 강아지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벌써 갖다 버렸을 것이다. 자식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자식을 낳은 자신의 팔자를 탓할까? 경찰서에 집어 넣어버렸을까? 아니면 허파가 뒤집어져 죽었을까? 혼하지는 않지만 자식을 죽인 부모도 가끔 있으니 주의할 일이다.
28.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왜 앗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가?
북 이스라엘의 멸망부터 언급하기 때문: 전 역사를 통해 전 계층이 하나님을 배반했다(32). 그러다가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망했다. 남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갔고 페르시아 통치하에서 귀환하게 되었다.
29. 귀환했는데도 아직 종인가(36)?
 귀환은 했지만 아직 주권은 찾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죄가 더 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가(33)? 그 후에 일시적으로 왕국을 세우기는 하지만 헬라에 복속되었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
30.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면 자유인이 될까?
사람의 종이 된다(36-37): 열심히 농사지어 봐야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몸과 육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징집 당하면 끌려가야 하고 공출 당하면 내놓아야 한다. 그러니 곤란이 심하지! 진짜 선한 주인 밑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훨씬 나운데 자유가 뭘지도 모르고 자유를 찾아 뛰쳐나 가려는 미련한 인생들이여!
31.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고서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합의문에 서명을 한 셈: 언약문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것이다. 10장에 그 내용이 나오겠지! 비슷한 장면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앞으로 '이런 사회를 만들자'고 Mayflower 선상에서 합의하고 서명하는 장면이 Cape Cod(Plymouth) 이전에 도착한 곳에 부조로 새겨져 있다. 이제야말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열망으로 가득 찬 언약식이다.

느헤미야 10 장

-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어야 정상인가?
9장의 끝에: 언약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자들이니까 서명한 부분인 9장 끝에 있어야 할 이름들이다. 원래는 이렇게 장절로 나뉜 것이 아니니 잘못이랄 것도 없기는 없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언약에 사인을 하는 셈이다. 한 번 인을 찍으면 왕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했던 메데 바사의 법(단 6:8-9)을 잘 아는 사람들의 사인이다.
- 여기 제사장의 명단을 12:1-7절과 비교해보자. 같은 이름이 몇 명인가?
11명: 스라야, 예레미야, 아마랴, 말룩, 핫두스, 므레못, 긴느도이(긴느돈), 아비아, 미야민, 빌가(빌개), 스마야. 12장의 명단은 최소한 100여년 전 귀환한 제사장들의 이름인데 같은 이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개인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 느헤미야도 제사장인가? 제사장 그룹에 들어있었는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별도의 그룹으로 본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접속사 없이 나열되었다. 스라야부터 제사장의 이름이다. 이 두 사람은 신앙 운동을 지도한 정치 지도자였다. 정치 지도자가 신앙운동을 이끌었다? 올바른 신앙을 지닌 정치가가 얼마나 영향력이 지대한지 잘 보여준다. 오늘날도 올바른 신앙을 지닌 연예인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예를 볼 수 있다. 어떤 달란트를 가졌든지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정교본리를 외치는 현대에서는 거부감이 없는 연예와 종교의 결합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요 학사였던 에스라는 왜 서명한 제사장의 명단에 빠졌을까? 스 7:1을 참고로 생각해 보자.
 에스라는 스라야 가문이다. 즉 그 가문의 대표로서 아버지인 스라야가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 레위인들의 명단(9-13)을 9:4-5절과 비교하면 같은 이름이 몇 명인가? 또 8:7절과 비교해 보자.
6명(9:4-5, 찬양과 기도회를 인도한 레위인들): 예수아, 해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바니), 갓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아, 스바냐.
6명(8:7, 율법을 가르친 레위인들): 그리다, 블라야, 하난, 세레바, 호디아, 바니.
 제사장들과 달리 레위인들의 이름은 전부 개인의 이름이다. 빈누이는 바니와 동일인이므로 동명이인이 두 쌍이다(바니, 호디아).
- 두목들의 이름(14-27)을 비교하려면 스 2장과 비교해야 한다(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란 뜻이다). 눈이 아프지만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스 2:3), 바핫모압(스 2:6), 엘람(스 2:7), 샷두(스 2:8), 바니(스 2:10), 분니, 아스갓(스 2:12), 베배(스 2:11, 브배), 아도니야, 비그왜(스 2:14), 아딘(스 2:15), 아델(스 2:16), 히스기야, 앓술, 호디아, 하숨(스 2:19), 베새(스 2:17), 하립, 아나돏(스 2:23, 지명), 노배(스 2:29, 느보일 것). 그런데 이들 중에 스 2장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밀줄 친) 사람은 몇 명? 20-27절의 이름은 통째로 나오지 않는다?
 귀환 이후에 새로 생긴 가문일 것이다. 자신들의 보계를 입증치 못하여 조상들이 살던 지방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되었던 자들(스 20:35)이 이렇게 가문을 새로 만들었던 모양이다.
-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28)은 그 앞의 백성들과 다른 무리일까?
다르다: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로 하고 할례를 받고 귀환한 사람들을 가리킨다(스 6:21).
-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란(28)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 즉,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회중'(스 8:2-3) 전부를 가리킨다.
- 28절은 대표로 인을 친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다. 그러면 '인친 모든 자'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 형제 귀인들(29): 언약 문서에 서명한 제사장, 족장,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대단히 귀한 사람들 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 일 뿐이다.
- 29절과 30-39절은 내용상으로 어떤 관계인가?
 29절이 그 이하 내용의 요약(결론)이고 30-39절은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29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다'는 식으로 번역되었더라면 좋겠다.
-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했을 때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사항이 하필이면 왜 이방인과 동혼하지 않는 것(30)이었을까? 그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일인데(스 9, 10장) 또 불거졌기 때문: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부한 사항인데(신 7:3)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에스라가 통곡을 하며 개혁했던 일인데, 그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뒤에 또 악습이 되살아났던 모양이다(13:23-24) 사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영똥한 욕심 때문이었을까? 아무리 이방인의 딸이 좋아보여도 하나님을 저버릴 위험을 품고 있는 일이다. 상거래마저 중단한 것은 아니다(31).
-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의 내용도 방대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일이 혼인문제 외에도 안

식일을 지키는 것이었다(31).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창 2:1-3)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티를 내는 것이기도 하다(출 31:13, 겔 20:12, 9장의 14번 참조):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구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이 된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야 하나님에게도 안식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마치 집나간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에게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년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 또 희년을 지키게 된다. 반면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음식이 문제였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게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일까?

13. 성전을 완공하고 백성들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으니 이제 다 된 건가? 또 무엇이 필요한가?

성전을 유지 운용할 경비가 필요함(32):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도 돈이 필요한 것이다.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만 해도 엄청난 경비가 들었을 텐데 이것을 위해서 매년 일인당 삼분 일 세겔을 내기로 스스로 정한 것이다. 훗날 성전세에 해당한다. 예수님 당시에는 반 세겔이었다(마 17:24). 성전을 세운 솔로몬 시대에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경비도, 곤물을 수리할 경비도 감당하지 못했다(참고, 왕하 12:6).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런 경비가 나올 곳이 마땅찮으니 스스로 헌금을 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바사왕이 이런 경우에 사 용하도록 허락한 경비가 있었으나(스 6:8-10)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14.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로 드리는 것 아닌가?

개인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많다(33): 성소의 떡상에는 안식일마다 새롭게 떡을 올려놓았다(진설병, 레 24:6-8). 아침과 저녁에 어린 수양을 드리는 상번제(안식일에는 어린 수양 둘, 민 28:9),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한 마리, 어린 수양 7마리를 드리는 월삭제사가 있고(민 28:11) 이 때는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렸다(민 28:14). 그 외에 정한 절기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 등이 있었다.

15. 성전에서 드리는 재물과 비례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무: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으니 화목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다. 종족별로 제비 뽑아 나무를 조달했다(34). 일 년에 반 세겔을 낼 뿐 아니라 이렇게 몸을 드려 성전에 필요한 것을 채운 것이다. 이런 일에 제사장은 빼주지? 안 뻘뻘! 귀하신 제사장이라도 제사를 드리는 화목을 구하는 일에 빠지지 않았다.

성전세를 내는 것이나 화목을 구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이런 일은 35-37절과 달리 율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렇게 스스로 만들면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규정으로 인식 되어버리는 것이다. 자발적인 것에서 의무적인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16. 만물, 첫 열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출 34:26, 신 26:2, 출 13:2, 민 8:16).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유가 뭘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 심지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성(여리고)에서 얻는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다. 어른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술가락을 들어야 다른 식구들도 따라 들었다. 이런 관습은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티를 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17. 이렇게 많은 재물과 토지소산을 바치기로 작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전을 버리지 않으려고(39):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성전이 제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러자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제대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그것이 성전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드려야 한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던가?

1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 제사장을 붙여둔 것은 감시하려는 것인가?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셈이다: 레위인들이 받은 십일조 중에서 또 십일조를 떼어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민 18:28). 어차피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특별히 이 경우에는 함께 일을 맡으므로 불만이 생길 여지를 없애려는 것이다.

느헤미야 11 장

1.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마치 특별한 임무에 뽑힌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1-2)?
제비뽑기로 선발한 점과 자원한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것: 가기 싫은 파견 근무에 누군가가 자원하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완성되어도 거기에 거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이제는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들여야 한다? 상호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람이 주체여야 한다. 학교든, 교회든,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잘 지어진 교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2. 제비를 뽑아서 1/10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다는 것은 그 곳에 거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하게 한 셈이다. 명색이 수도인데 왜 이래야 했을까?
 주권을 잃어버린지 오랜 후에 겨우 재건했지만 아직은 스스로를 방어할 만큼 강하지 못해서(느 7:4) 각종 이방인들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3.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이라면 반발하지 않았을까?
신앙적 결단(10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 더구나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뜻으로(잠 16:33) 믿기 때문: 신앙적인 결단 없이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교회일 이든 국가일 이든 감격 없는 훈련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국가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는 어떤 어려운 훈련도 기꺼이 감당하지만 재수 없게 뽑혔다거나 힘이 없어서 자기만 잡혀왔다고 생각하면 훈련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더구나 지도자(두목)들이 솔선수범하였으니(1) 더욱 수월했을 것이다. 원리를 먼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특히 로마서).
4. 예루살렘과 그 '도'는 어떤 관계인가(3)?
예루살렘은 그 도의 도청인 셈: 유다가 페르시아의 한 행정구역이었으므로 '도'라고 불렀다(스 2:1). 에스더 당시에 바사에는 127도에(1:1, 8:9)가 있었다. 예루살렘도 그 중의 하나였다.
5.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자손의 두목은 누구인가?
아다야(4)와 마아세야(5): 이 두 사람이 베레스의 자손인 것처럼 보이거나(6) 실제로 마아세야는 베레스의 동생인 셀라의 후손(=실로 사람)이다. 같은 유다 자손인데도 유다의 대표적인 족속이 베레스이니 이렇게 표기한 모양이다.
6. 예루살렘에 거하는 베냐민 자손의 두목은 누구인가?
살루, 감배, 살래: 베냐민 지파의 수가 유다 지파보다 많다. 사사 시대에 사라질 뻔 했던 종족이 많이 번성했다. 더구나 감독 부감독을 차지했으니(9)
7. 요엘이 예루살렘의 감독을 하고 유다가 부감독을 하면(9) 느헤미야는 무얼 하지?
도지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느라고 전심전력을 쏟았지만 실제로는 유대 전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이었다.
8.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언급에서 절 구분이 영 이상하다. 11-14절을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구분해보자.
11-12a(성전 담당 820명), 12b-13a(일반 제사장들 242명), 13b-14a(큰 용사 = 경비 담당 128명), 14b: 말은 임무에 따라 제사장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삽디엘(14b)은 제사장 중에서 큰 용사의 감독이니 성전 경비대의 대장이다. 참고로, 장, 절 구분은 후대의 편집자가 임의로 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잘못 구분된 것이 적지 않으므로 너무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한다(특히 이사야서).
9.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주로 봉사했다면 레위인들은 성전세나 십일조를 받거나(10:37-39) 성전을 보수, 유지하는 일을 맡았다. 이런 레위인들의 임무를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전 바깥 일: 광야에서 행군할 때는 주로 해체, 이동, 조립을 맡았지만 이제는 성전을 지었으니 보조적인 임무를 맡았다. 교회의 집사들인 셈이다.
10. 레위인들은 성전의 보조적인 일에 봉사했다. 가령,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일, 가르치는 일, 찬양하는 일, 문을 지키는 일 등이다. 그러면 17절의 '감사하는 말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결과?
찬양: 그러니까 맛다냐는 찬양대 지휘자고 박부가는 부지휘자다. 이들이 속한 가문 아삽 자손은 보통 '노래하는 자들'로 불린다(22, 7:44, 스 2:41, 참고: 대상 16:41의 여두둔). 이런 일들이 몇 명에 로운 일이었을까? 레위인들의 숫자가(284 + 172 명) 다른 지파에 비해서(특히 제사장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참고: 스 8:15). 교회도 음지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공지를 살리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레위인들이 성문까지 지켰을까? 19절의 '성 문지기'는 그냥 '문지기'라는 뜻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스 2:42의 말문과 악급)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11. 20절은 3절과 중복인데도 없어도 되는 말인데 왜 또 삽입하였을까?
홀어져 고향 땅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고 말하는 셈이다: 일종의 칭찬이다.
12. 오벨이란 시온성과 다윗성의 연결부분을 가리킨다. 본래는 두 구릉 사이의 계곡지대지만 성벽

으로 둘러싸여 요새화되었다. 한쪽에는 성전, 다른 쪽에는 왕궁이 있다. 느디님 사람들이 왜 이런 곳에 거하게 되었을까(3:26)?

일터에 가까운 곳이라서?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로서 성전의 막일을 맡았다(스 8:20). 그래서 아마도 가까운 곳(약간은 낮은 곳에 집단으로 거주했던 모양이다.

13. 아삽 자손의 얘기가 왜 또 나오나(22)?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한 일 때문이다: 웃시가 왕의 명에 따라 노래하는 자들에게 봉급 주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왕이 보기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이었을까? 제사장을 행기지 않고 말이야?

14. 브다히야는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언급이 되는가?

(페르시아)왕의 지근거리(왕의 수하)에서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알리고 왕명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었다(마치, 미국 대통령의 동북아 담당 보좌관과 같은 유의 지위였을 것).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정하여 주는 왕명을 전할 수 있었다. 다른 일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이유는 노래하는 자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5. 유다 자손들이 거하였던 향리 중에서 이름을 들어본 곳이 몇 군데인가?

최소한 4개를 넘지 않으면 회개하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한다: 기랏 아바(=기랏 아르바 = 헤브론, 창 35:27, 수 15:13), 브엘세바(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거주지, 창 22:19), 시글락(다윗의 망명처, 삼상 27:6), 아둘람(다윗의 피난처, 삼상 22:1), 라기스(유명한 요새, 왕하 18:17), 아세가(수 10:10, 여호수아), 힌놈의 골짜기(우상 숭배의 장소, 렘 7:31) 등이다.

16.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다. '브엘세바에서 힌놈의 골짜기까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지명일까?

유다 지파의 거주지: 힌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편에서 남북으로 뻗은 골짜기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성읍이었다(수 15:8, 18:28). 특히 이 지역은 여호수아 시대를 회상케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시대!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가 이제 겨우 조금 회복된 셈이다. 이런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 왕국의 회복을 염원하면서 이 부분을 읽지 않았을까?

17. 베냐민 자손이 거주하던 성읍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벨엘이다(예루살렘은 제외하고). 또 다른 익숙한 지명이 있는가?

믹마스(삼상 13-14장): 요나단이 블레셋을 크게 물리친(일종의 독립전쟁) 싸움터이다. 앓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주둔할 것이라고 예언한 곳이기도 하다(사 10:28). 그 외에도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렘 1:1), 실로가 파괴된 이후 성막이 있던 늪(삼상 21:1), 사무엘의 고향 라마(삼상 7:15-17), 하나님의 애절한 노래에 등장하는 스보임(호 11:8),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죽이려고 하던 오노(느 6:2) 등이 있다. 유다 지파의 성읍만큼 익숙하지는 않아도 성경에 특징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안면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18. 성경에 이런 것(인구 재배치, 거주지)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나간 선조들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역사하심도 함께 살펴야 한다. 신앙생활이 예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인간들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느헤미야 12 장

1. 10:2-8에 언급된 제사장들은 느헤미야 시대에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이다. 그들과 여기 언급한 제사장들(1-7)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여기 명단은 1차 귀환 때의 제사장들이다. 시간상으로는 대략 100년(BC 537 BC 444)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같은 사람들일 리가 없다. 10장의 명단이 개인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기 때문이다(12-21절과 10장의 2번 질문 참조). 10장에는 없는 이름이 추가되어 있다(요야립부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분들은 언약에 인을 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2. 레위 사람들의 명단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 8-9절과 10-11은 어떻게 다른가?

8-9절은 수평, 10-11절은 수직적이다. 특히 10-11절은 아론의 족보(대상 6:3-15)의 연장이다.

3. 2:40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8-9절에는 많은 사람이 추가 되었다. 자연증가도 있겠지만 100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특별히 행거서 데려왔기 때문 아닐까(스 8:15-20)?

4. 맛다냐와 그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8-9). 그런데 일을 할 때 함께 하지 않고 맞은편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찬양대가 둘로 나뉘어 마주보고 있었을 것이다. 서로 화답하는 형태의 찬양을 부르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5. 예수아는 1차 귀환 때의 대제사장이다(스 2:2, 3:2, 느 7:7). 그러면 느헤미야 시절의 대제사장은 누구일지 짐작으로 맞춰 보자.

요야다(느 13:28): 엘리야십은 에스라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다(스 10:6). 그러면 요나단이나 얏두아는 느헤미야보다 다음, 혹은 다 다음 세대인데 어떻게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얏두아는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BC 333) 대제사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후대에 가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간혹 있다(22-23, 신 34:5, 수 24:29, 막 16:9-20).

6. 또 제사장의 명단이 나온다!!! 이권(12-21) 언제적 명단일까?

요야김 때: 에스라가 귀환하기 직전쯤 일 것으로 추정한다. 말하자면 스룹바벨의 인솔하에서 귀환한 바로 다음 세대의 제사장들이다. 1세대의 명단(1-7)과 비교해보면 핫두스 외에는 빠진 가문이 없다.

7. 대제사장의 시대별로 함께 섬겼던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족장들을 기록하였단다(22).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 다리오는 어느 제사장 시절의 다리오일까?

얏두아 때의 다리오: 다리오라고 불리는 왕이 여러 명이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음) 외에 다리오 1세(BC 522-486, 중지되었던 성전 공사를 재개하도록 명함), 다리오 2세(BC 423-404), 다리오 3세(BC 336-330,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으로 알렉산더에게 패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다리오 3세일 것이다.

8. 22-23절은 삽입절처럼 보인다. 두 종류의 기록문서가 있었다고 말하는 셈이다. 무슨 책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편의상 이 책에 이름을 붙여보자.

바사 왕조실록과 유대 역대지략: 바사의 입장에서 보면 먼 지방의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지방의 주요인물에 대한 기록을 남긴 모양이며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당연했을 터이다.

9. 성벽낙성식을 거행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길게 서술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계를 살림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살피려는 것: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있고 백성들은 이들을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요 합당한 여부를 살펴야 했다. 오늘날에도 무자격자인지도 모른 채 교수, 목사 노릇을 하도록 내버려둔 경우가 적지 않다. 목사라고 함부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순종할만한 분인지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10. 성벽 공사가 완료된 기록은 6:15절에 있었다. 이제 봉헌식을 하려고 한다(27). 그러면 그 동안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길었는가?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인구 재조사(7장), 영적회복(8-9장), 백성들의 다짐(10장), 인구 재배치(11장)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쁨으로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다. 성곽을 완성한 후에 이것을 제대로 지켜낼 사람이 부족함을 알고 신앙운동을 통해서 결속을 다진 후에 인구를 재배치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다.

11. 성벽낙성식을 위해서 요긴한 두 가지 사항은 무엇인가?

노래하는 사람들(27-29)과 정결례(30): 낙성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러므로 먼저 정결하게 한 후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12. 낙성식의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는 행진이다. 힘들게 성벽을 완성했으니 그 성벽 위를 행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까? 아주 적절한 행사인 셈이다.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행진을 했는가?

두 팀으로 나뉘어 성곽 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행진한 후에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40) 함께 찬송을 드렸다.

13. 에스라가 이끄는 행렬은 '우편으로 가서 본문(31), 샘문, 다윗성의 층계, 수문에 이르렀다(27)'. 이 코스는 어디서 본 듯하지 않은가?

느헤미야의 야간 순행 코스와 답았다(2:13-15):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 용정, 분문, 샘문을 통과해서 좀 더 올라갔다가 돌아왔으나 에스라가 이끄는 행렬은 이 코스를 따라 성전까지 계속 나아갔다. 이 코스는 성의 남쪽을 돌아서 동쪽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오는 코스다.

14. 느헤미야가 이끄는 백성들의 행렬은 성벽의 서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동쪽으로 향한 길인데 어디, 어디를 지났는가?

'꼴무 망대, 윗길, 성 넓은 곳, 에브라임 문,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 감옥 문에 이르렀다'(참고 6:7-13).

15. 나팔, 제금, 비파, 수금은 누가 연주하는가?

나팔은 제사장(35, 41, 대상 15:24), 나머지는 레위인들(27, 대상 15:16): 다윗이 이렇게 명하였기 때문에 이 악기를 '다윗의 악기'라고 불렀다(36).

16. 성벽을 완성하게 된 일등 공신은 느헤미야다. 느헤미야가 없었더라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낙성식에서 느헤미야는 무슨 대접을 받았는가?

낙성식 자체는 일종의 제사다. 느헤미야가 나설 일이 없다. 민장들과 함께 참여했을 뿐이다(40). 교회를 짓는다고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이 어깨에 힘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교회에 남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봉사했다고 품 잡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17. 즐거우면 무슨 일이 생길까?

큰 소리가 난다(43), 기꺼이 헌물을 드린다(44):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우러난 것이어야 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8:10). 이런 즐거움이 없는 헌신과 노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역겨운 재물일 뿐이다.

18. 거제물과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다고(44-45)?

아니다,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이 명한 것'이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은 임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가리킨다: 이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정한 규례를 따라 잘 봉사하였으며 그 뒤를 백성들이 잘 받쳐주었다(47).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벽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레위인들의 삶을 보장할 제도를 잘 정비해야 했다(44-47). 그렇게 해서 유대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되었다는 뜻이다.

느헤미야 13 장

1. 시간상으로 내용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1-3절은 낙성식을 하던 날, 4(5)-31절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1-3절은 12장에 붙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내용상으로는 유대 공동체의 환부를 도려내고 정화하는 일이란 점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2.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감화를 끼쳐야지 읽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

개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서는 본문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설교가 중요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은 읽어주는 것이 더 급했다(8:8, 8:18, 9:3). 그렇다고 설명을 전혀 덧붙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8:8).

3. 모세의 책 어디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을까? 그걸 어떻게 찾아내지?

신 23:3-5, 관주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 이럴 때 사용하라고 관련된 내용을 다 찾아두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성구사전이나 컴퓨터에서 찾기 기능도 유용하다. 기본적으로 성경에 부기되어 있는 관주를 사용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야 한다.

4. 유독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렇게 거부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뿌리이면서 대적했기 때문.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친한 사람이나 형제가 괴롭게 하는 것이 더 괴로운 법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행군 도중에 이 두 족속은 공격도 하지 말라(신 2:9, 19)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5. 섞인 무리(3)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닌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환영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출 12:38, 수 8:33, 왕상 8:41-43, 사 56:6-7) 이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다(겔 44:9).

6.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순종하였을까?

성이 완공된 후 지금까지 에스라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감화를 주었다(8, 9장). 어느 때보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던 때이기 때문이다. 좀 흥분한(?) 상태였던가 보다. 은혜가 넘치던 시절에야 무슨 일인들 못할까? 식지 말아야 할 텐데...

7. 이렇게 열성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던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이방인의 괴수인 도비야와 교제를 하며(4) 하나님의 전에서 방을 다 내어주었을까(5)?

분위기에 휩쓸린 열심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마련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살아있는 권력(도비야는 사마리아의 2인자)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과거의 인과관계(4, 28)를 청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면 엘리아십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이 그냥 직업이었을 뿐인 사람같아 보인다. 이런 저런 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개인적인 결단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때로부터 시간이 조금 경과된 후 느헤미야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BC 433-432, 6절의 '며칠 후'란 '날들의 끝에'라는 말인데 아마도 1년이 거의 끝나는 시점일 것이라고 생각함) 이 모양이다.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에스라도 없었던 모양이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유월절을 제정하거나(출 12:24-27) 각종 기념물이나 절기를 세운 것도 그런 탓이다.

8. 엘리아십이 도비야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푼 증거가 무엇인가?

큰 방(5)을 준 것: 아마도 가장 큰 방이었을 것이다. 성전에 딸린 방들은 대체로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지만 각종 제물과 기명과 헌물을 모아두는 공간을 주었으니 크기로 치면 가장 컸을 것이다. 원문에 '그 방'을 받는 동사의 어미가 복수형인 걸로 보아 여러 개의 방을 헐어서 만든 큰 방이었던 모양이다. 이런 방을 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도비야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 셈이다.

9. 엘리아십의 잘못을 바르게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8-9)이 누구를 닮았는가?

성전을 청결케 하시던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마 21:12-13, 막 11:16-17, 눅 19:45-46): 때로는 이런 모습도 필요한 모양이다. 법사에 유순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모양이다.

10. 엘리아십만 문제가 아니네! 십일조와 관련된 것만 보면 또 누가 문제인가(10)? 하기는 머리가 이 모양인데 손발인들 온전하겠는가?

레위인과 백성들: 레위 사람들의 소득원이 되는 십일조와 헌물을 내기로 작정을 하고도(12:44) 얼마 후에는 내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먹고 살자고 농사지으러 간 것이다(10). 따라서 공간이 빈 방이 되었으니 재활용하여 도비야에게 준 것이다. 백성들이 먼저 잘못 했을까, 레위인들이 먼저 잘못 했을까? 레위인들만이라도 자리를 지킬 수(= 굶어 죽는 일)는 없었을까? 에스라가 여러 번 말씀을 가르쳤고, 감격스러운 일도 많았고, 충직한 자들이 있었음에도 느헤미야가 없으면 안 되는가?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헤미야는 어디서 이렇게 올곧은 신앙을 배웠을까?

11. 교회도 가끔은 재정문제로 시험이 드는 수가 있다(행 6:1-2). 처음에 집사를 세운 것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행 6:2절의 '공제'라는 말이 '재정출납'을 의미하기도 함).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고후 8:18-21). 백성들이 십일조를 제대로 내

지 않게된 것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느헤미야의 어떤 조치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가?

고지기를 관계된 여러 계층에서 뽑아 함께 일하게 한 것(13) 이번에는 제사장, 서기관, 레위 사람 세 사람을 고지기로 삼고 거기다가 부고지기(혹시 다른 지파 사람?)까지 세웠다. 전에는 십일조를 레위인들이 받고 제사장이 입회하였다(10:38)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지 않았을까!

12. '내가 행한 일을 잊지 마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체로 이기적인 기도일 수 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행한 일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행한 일이 도말된다는 것은 곧 여호와 신앙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13. 십일조 내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식일 지키는 일에도 문제도 생기기 마련이다. 어느 계명인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상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화 된 것)이 임했기 때문이다(18, 렘 17:27, 골 20:12-13) 대하 36:21절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땅에 안식을 주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14.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조치는 무엇인가?

일반인들에 대한 경계(15), 귀인들을 책망(17-18), 안식일에 성문 출입 금지(19), 이방 장사꾼들에게 경고(21), 성문지기에 자신의 친위대 뿐 아니라 레위인까지 동원(19, 22)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셈이다.

15. 이방인 장사꾼들이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성 밖에서 자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권력 남용 아닌가?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려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시끄러움, 구경거리). 예배당 옆에서 고성방가 하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 일 수도 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만의 총독이 아니라 유대지역의 총독이었으므로 이방인들도 다스릴 권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법적 권한까지 가진 총독이 신앙을 파수하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나 교회가 이런 힘에 기댄다면 그것 역시 위험하다.

16. 느헤미야의 '나를 아끼시옵소서'라는 말(22)도 전혀 교만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죽어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된다. 왜?

잠시 자리를 비웠더니 성전도 버려지고(10-11) 안식일도 망가지고...(15-16) 감히 '나를 아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산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비슷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다(고전 4:16, 11:1) 감히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는데도 전혀 교만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17.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느헤미야 이전에도 있었을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 전에 미리 경고하였지만(신 7:3-4) 솔로몬이 좋은 선례를 남겼고(26, 왕상 11:3-8) 에스라가 귀국했을 때에도 심각했다(스 9:1-3). 그래서 에스라가 그야말로 개혁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또 이렇다. 에스라가 귀환한 것이 BC 458년이고 느헤미야의 2차 귀국이 BC 432이면(1차는 BC 444) 약 26년의 간격이 있다. 에스라의 개혁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자 또 병이 도진 셈이다. 간헐적으로 발견되기는 했지만(6:18) 이제는 제대로 발견된 셈이다.

18. 24절을 히브리어 순서로 하면 '그 자녀들, 절반, 말했다, 아스돗 방언'이 된다.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절반'이 어느 단어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그 자녀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절반이 아스돗 방언을 말하고 유다 방언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대체로 다른 역본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19.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한 혼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당장의 문제는 아이들이 유다 방언을 못한다는 점인데 그게 그리 큰 문제일까?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민족이라는 유대감이 크게 위협을 받는다. 신앙을 저버릴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그런 위험에도 이방 여인을 좋아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좋아 보인 탓이다. 이방인의 삶이 그렇게도 부러운 것일까? 신앙을 가볍게 보면 당연히 그렇다.

20.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에게 주는 벌을 보니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때리고 머리털을 뽑은 것은 징벌이라기보다는 경고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사법적인 벌(중한 체벌, 감금, 추방, 재산몰수)이 아니다. 엘리야십의 아들은 대표격으로 제대로 벌을 받은 셈이다. 대제사장의 신분에서 이방인으로 쫓겨난 것은 대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보다 더 험하다. 사랑의 위대함? 무서움? 사랑이 이런 것이라면 잘 끌라서 사랑할지 어다.

21.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유독 제사장의 손자라고 쫓겨나야 하나?

아마 틀어키기를 거부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철저하게 거룩하게 자신

을 지켜야 하는 지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레위의 잘못으로(창 34:25-26) 말미암아 야곱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었지만(창 49:7)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보임으로(출 32:26-29, 민 25:6-15) 되레 큰 복을 받은 레위지파이므로 더더욱 거룩해야 했다.